— 22 —

비강 구협 후두 및 기관에 발생한 디프테리아 1례

부산성분도병원
이계실 · 차인숙 · 김정중

디프테리아는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었으나 요즈음은 예방접종의 실시로 발생이 많이 감소된 반면에 나이를 먹은 어른이 늦게 걸리는 경향이 있다.

저자들은 최근에 16세 여자 환자에서 비강 구협 후두 및 기관에 발생한 디프테리아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3 —

부식성 식도염에서의 조기 식도경술의 의의

연세대학교 원주의학부
임병석 · 봉정표 · 박순일 · 문태용 · 윤강묵

화학 독극물의 오연 및 음독으로 인한 부식성 식도염의 처치 및 치료법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심한 부분이며 아직도 뚜렷한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1960년대 부터 소위 "적극적 진단방법(VDA)"으로 집약되는 조기 식도경술 혹은 응급 식도경술의 개념이 이 질환의 진단에 도입 되면서 여러 치료방법의 선택에 선행하여 식도 부식의 유무 확진 및 부식 정도를 분류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었다. 〔Kaplan (1961), Hanckel (1951), Davis (1956), Alford (1959), Daly (1968), Welsh (1978)〕

조기 식도경술의 장점은 ① 병변부위 및 화상 정도의 정확한 진단. ② 치료방법의 선택. ③ 입원기간 단축. ④ 병의 예후판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질환에 관한 많은 연구자 들은 실제로 조기 식도경술을 시행한 결과 약 25 % ~ 45 %에서만 식도병변이 존재 하였을 뿐 많은 경우에서 병변이 없거나 경미한 예가 많았다는 보고들이 있어〔Waggonor (1958), Kaplan (1961), Yarington (1964), Hawkins (1980)〕이 질환의 치료방법의 선택은 조기 식도경술로 병변부위를 확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 생각된다. 특히 식도협착의 예방을 위한 Steroid 투여는 아직도 학자간에 찬반의 논란이 많고, 더욱 다량의 출혈 및 천공의 위험성의 증대가 예견되는 Steroid 치료는 적용예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함으로서 불필요한 합병증의 위험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들은 1980년 1월 부터 1982년 12월 까지 원주기독병원에 입원 하였던 부식성 식도염 환자 41명을 식도경 검사를 실시하여 식도·병변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대한 각각의 치료를 시도 함으로서 몇가지 앞으로의 치료지침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분포는 남자 16 (39 %), 여자 25 (61%) 이었으며 1 : 1.5 의 빈도를 보였다.

2) 연령 분포는 20대와 30대에서 남녀 모두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부식제의 종류는 빙초산이 26명 (63.4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염산 7 (17.1 %) Lye 3 (0 .7 %) 의 순 이었다.

4) 음독후 12시간내에 식도경술을 받은 환자가 3명 (0.7 %) 12-24시간에 받은 환자가 17명 (41.5 %), 24 - 48시간에 받은 환자가 11명 (26. 8%) 으로 48시간내에 시행받은 환자가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다.

5) 식도경 검사상 나타난 식도화상은 Grade Ⅰ 11명 (26.8 %) Grade Ⅱ 18 (43.9%) Grade Ⅲ 7명 (17. 1 %) 이었으며 Grade Ⅱ 인 경우가 18명 (43.9 %) 로 가장 많았으며 Grade Ⅰ 11명 (26.8 %), Grade Ⅲ 7명 (17.1 %) Normal 5명 (12.2 %) 순 이었다.

6) 조기 식도경 검사에서 41명중 oral cavity burn 이 없었던 경우가 15명 (36. 1 %) 이었으며, oral cavity burn 이 있었던 26명중 5명 (19 .2 %) 에서 Esophageal burn 이 없었다. 특히 Esophageal burn 의 Grade Ⅱ, Ⅲ 25명중 9명 (29.6 %) 에서 oral cavity burn 이 없었다.

7) 식도 부식중 환자의 치료 원칙으로 Grade Ⅰ, Ⅱ, Ⅲ에서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Grade Ⅰ에선 oral feeding 을 시켰고 Steroid 는 경우에 따라 투여하였으며 Grade Ⅲ에선 원칙적으로 사용치 않았다. 식도조영술은 Grade ⅠⅡⅢ에서 3주후에 모두 시행하였다.

8) 3주후 식도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Steroid를 투여한 27명중 5명 (18.5 %) 에서 식도염이 계속 존재하는 음영을 나타냈으며 Steroid 를 투여하지 않은 9명은 1명 (11.1 %) 만 식도염의 음영이 보였다.

9) 3개월후 추적검사는 Steroid 투여군에서 4명

(14.8%), 비투여군에서 3명(33.3%)의 식도 협착을 보여 Steroid 비투여군에서 다소 식도 협착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10) 평균 입원 기간은 식도경 검사에서 Normal로 나온 경우가 평균 4.2일, Grade Ⅰ은 13.8일, Ⅱ는 25.6일, Ⅲ는 30.9일 이었다.

— 24 —

식도협착에 의한 반복 식도이물례

순천향대학 의학부
김영순 · 강주원 · 허성희 · 방대춘

음식물괴에 의한 갑작스런 식도폐쇄는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다. 주로 고령자나 치아의 결손이 있어 불충분한 저작후 큰 덩어리를 무리하게 삼켜 잘 일어난다. 대개는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정상적인 식도를 가진 사람에서도 드물게 일어난다. 그러나 가장 흔한 원인중의 하나는 식도부식등의 기왕력이 있은후 이차적으로 생긴 식도협착증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괴에 의한 식도이물의 경우 기왕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저자들은 최근 식도협착이 있는 58세된 남자 환자에게서 10일동안에 연거퍼 2회의 음식물괴에 의한 식도이물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25 —

흥미있는 식도이물 1례

순천향대학 의학부
강주원 · 장혁순 · 박성남

식도및 기도이물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으로써 특히 식도이물의 보고예는 국내문헌상에서도 수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의 진단에는 X-선 촬영이 필요불가결하며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중 특히 경부측면 X-선 검사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저자들은 4세의 여아에서 2개의 동전이 중첩 계류된것을 경부측면 X-선상에서 확인하여 식도경술하에 제거한 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면서 식도및 기도이물, 특히 동전의 식도이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경부 전후경 X-검사는 물론 특히 경부 측면엑스선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 26 —

기도이물의 임상적 고찰

경희의대
조진규 · 안회영 · 홍남표 · 이익재

저자들은 1973년 4월부터 1983년 2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치료한 기도이물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은 남자 17예(71%) 여자 7예(29%)로 남자에서 2.4 : 1의 비율로 많았고, 연령별은 4세 이하 17예(71%)로 전체의 $\frac{2}{3}$를 차지하였다.

2) 발병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24시간 이내 12예(50%), 2~3일 5예(21%)이었으며, 5개월이 지나서 내원한 예도 1예 있었다.

3) 이물의 종류는 식물성 13예(54%)프라스틱 종류 5예(21%), 어골 3예(13%), 금속성 2예(8%), 치아 1예(4%)의 순이었다.

4) 개재부위는 기관과 우측 기관지가 각각 9예(38%), 좌측 기관지와 성문부가 각각 3예(12%)이었다.

5) 내원시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 19예(79%)로 주가 되었고 그외 기침 11예(46%), 발열 9예(38%), 청색증 4예(8%)이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2예(8%)있었다.

6) 초진시 이학적 소견은 호흡음 감소가 15예(63%)로 가장 많았고 그외 수포음 6예(25%), 흡기성 천명 5예(21%) 흉벽함몰 2예(8%)이었고 2예(8%)에서는 특기할만한 이학적 소견이 없었다.

7) 내원시 단순흉부 X-선 소견은 무기폐 6예(25%), 폐기종 5예(21%), 확실한 이물음영과 폐렴이 각각 4예(17%), 심장위치의 이동이 3예(13%)이었고 10예(42%)에서는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8) 적출방법은 ventilating bronchoscope을 이용하거나 직접후두경을 이용한 경구적적출이 17예(21%), 기관절개창을 통한 적출이 5예(21%), 기관절개창을 통한 자연배출과 개흉술이 각각 1예(4%)이었고 적출술 시도회수는 1회로 성공한 예가 20예(83%), 2회 이상이 4예(17%)이었다.

influenzae. This is so because early recognition and careful airway management is always desired.

Numerous reports in the literature reveals that a majority of cases occurs mainly in young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however, recent reports of acute epiglottitis in adult is increasing.

We present a series of acute epiglottitis in adul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We also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acute epiglottitis in adult and in children in terms of clinical course, causative organism, management and the results of treatment.

— 22 —

A Case of Diphtheria Involving Nasal Cavity, Fauces and Laryngotrachea

Kye Sil Lee, M.D., In Sook Cha, M.D.,
Jung Joong Kim, M.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St. Benedict Hospital, Busan, Korea

Diphtheria is now very rare condition because of generalized preventive immunization.

Authors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diphtheria involving nasal cavity, fauces and laryngotrachea in a 16-year-old female with 4 days history of throat pain, malaise and moderate pyrexia with chill.

This is the report of the case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 23 —

Significance of Early Esophagoscopy in Corrosive Esophagitis

Byoung Seok Lim, M.D., Jeong Pyo Bong, M.D.,
Soon Il Park, M.D., Tae Yong Moon, M.D.,
Kang Mook Yoon, M.D.
Dept. of Otorhinolaryngology Wonju Medical College, Yonsei Univ.

Corrosive injuries of the esophagus by accident or suicidal attempt, though decreasing in number, still represent an important problem of our national pathology.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acing any physician is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austic inges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esophageal burns, to prevent the potential complication, to increase the therapeutic effect, the use of esophagoscopy is an essential step, and it has lessened an unnecessary admission and treatment. The authors have found the value of early esophagoscopy in selected 41 corrosive esophagitis patient who were admitted to Dept. of ENT, Wonju medical college, Yonsei university between 1980. 1-1982. 12

— 24 —

A Case of Repeated Esophageal Foreign bodies Due to Esophageal Stricture

Young Sun Kim, M.D., Ju Won Kang, M.D.,
Sung Hee Hur, M.D., Dae Choon Bang,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udden esophageal obstruction by a bolus of food is not a rare phenomenon.

The individual is frequently elderly and has ill-fitting dentures through others may initiate this by bolting food. In adult patient there is a frequent history of alcoholic intake, the consumption of meat with improper chewing.

A common anatomic abnormality leading to meat impaction of the esophagus is hiatal hernia,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a ring or stricture.

Recently authors experienced a case of repeated esophageal foreign bodies in 10 days in the patient who had esophageal stricture.